



4면

의료용기기 기업·연구소 유치 잇따라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음 7월 28일) 제334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도, 이차전지 기업 금융지원 나서

KDB산업은행·새만금청과
이차전지 산업 육성 협약 체결

연구개발 등 단계별 지원

초격차 기술 확보로

국가첨단전략 산업 육성

전북도가 미래산업의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 지정에 새만금에 유치해 낸 뒤 관련산업 투자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금융지원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

도는 1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과 주요 임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관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도내 입주 40여개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들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부터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해외 수출 지원자금까지 첨단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단계별 종합적인 금융관련 해결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효율적인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관련 조사 수행 △산업·기업 육성을 공동마케팅·홍보 및 상호 간 정보 공유 △신규 산업 조성 추진 시 금융 지원 제공·주선 △전담은행 전문직원 배치로 상시적 협력 채널 강화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게 된다.



1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 증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김관영 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도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기업과 신규 기업 유치, 초격차 기술 확보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입주기업에 설비투자 지원 금융지원 및 상담 등 종합금융 해결책을 제공, 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하는데 각각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도 전북도와 함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MOU)은 정책금융기관과 지자체 간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전북은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산업의 완벽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단지 집적화, 연구·개발(R&D) 혁신 공

간 구축, 초광역 연계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기업지원 협업 등 속도감 있게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연계 중앙부처에 핵심과제 건의와 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며, 전북의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속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자도 브랜드 개발 착수

도, 도내·외 전문가 10명으로 '브랜드위원회' 구성

도시브랜드 도민 의견 수렴 위한 '도민 참여단' 도 발족

전북도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전북의 미래 비전 등 정체성을 담아낼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관련사진 9면)

도는 1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전북의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디자인, 역사, 문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외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서순탁 전 서울사립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촉식 및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도시브랜드의 세계적인 흐름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 △전북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등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는 현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대기업 투자 유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새롭게 얻은 자신감과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도는 이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핵심 가치를 선정, 가장 전북다운 매력이 잘 드러나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다.

도는 브랜드위원회 가동뿐 아니라 도시브랜드에 대한 전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민 참여단'도 발족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롭게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려는 것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미래로 도약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성과 미래 방향성을 알게 될 것이다"며 "브랜드위원회를 비롯한 단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려는 것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미래로 도약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성과 미래 방향성을 알게 될 것이다"며 "브랜드위원회를 비롯한 단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위원회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도시브랜드 분석 △신규 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 자료 △브랜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자문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최종 디자인 도출 후 상징물 선포 시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촉식 및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도시브랜드의 세계적인 흐름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 △전북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등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는 현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대기업 투자 유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새롭게 얻은 자신감과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도는 이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핵심 가치를 선정, 가장 전북다운 매력이 잘 드러나는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 체계화

군, 국가중요농업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구축키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생강 전통 농업시스템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를 통해 체계적이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완주군은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위원장 이만철)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아카이브 자료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업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우리나라 농업유산 등재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한국농어업유산학회(이사장 이유직)가 진행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대한 역사성과 지속성, 생계유지 및 고유한 농업기술, 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 관련 자료들을 정밀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농업유산 활용 가치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생강과 관련된 자료들이 수집된다면 완주군의 문화, 환경, 농생명 특화지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생강과 관련된 자료들이 수집된다면 완주군의 문화, 환경, 농생명 특화지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 고인돌 유적서 '신규 고인돌' 발견 | 석곽 2기 등 추가 확인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사적명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의 시굴조사(2차) 중간조사 결과 신규 고인돌 5기, 고인돌 하부로 추정되는 석곽 2기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됐다.

고창군(고인돌박물관)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확대를 위해 문화재청과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보다 고인돌이 집중 분포된 범위에 대해 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조사면적 12만6,000㎡ 중 5코소 일원의 6만5,000㎡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일 유적지 현장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기존 고인돌 171기와 별개로 신규 고인돌 5기, 석곽 2기 등 다수의 유구가 추가 확인됐으며, 특히 신규 발견된 고인돌 3기가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새로운 고인돌열(列)이 발견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유적 2차 시굴조사 중에 발견된 신규 고인돌.

축! 전주매일 창간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희망의회!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
정치는 다음세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